

지역 매 아리

제2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섭 의원은 '정읍천 둔치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길 조성'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벌였고 조상중 의원은 '정읍 브랜드 콜 미가입 택시 지원책 마련 촉구', 이복형 의원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이남희 의원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사용물품 수리, 농촌 공동생활 그룹 운영 필요성', 이도형 의원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방주, 지역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벌였다.

이어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4일부터 13일(10일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에서는 주요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및 정읍시 고령문화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는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를 비롯한 예비비 및 결산,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도시재생뉴딜' 국가공모사업 최종 선정

## LH 전북본부와 수성동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쇠퇴한 역세권 주변 정비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175억원(LH 157억원) 등 총사업비 422억원

정읍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에서 공기업인 LH 전북본부(본부장 임정수)와 손잡고 노려온 Re:tm 정읍, 헤시태그(#[驛]) 사업이 공기업제한 중심시가지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도시재생 분야의 내노라하는 쟁쟁한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정읍은 LH 전북본부와 손잡고 노려온 Re:tm 정읍, 헤시태그(#[驛]) 사업이 공기업제한 중심시가지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유진섭 시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 공모방식으로 첫 번째로 선정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유 시장은 7월 6일 공모서 제출 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 일련의 선정과정에서 모든 대응전략 등을 진두지휘하였으며, 국토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재생사업 선정의 당위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도 수차례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사업은 크게 ▲전북 서남권 중심상권 회복 ▲직주근접의 주거복지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세대통합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재생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북 서남권 중심상권 회복사업은 슈퍼푸드 상생거점 육성을 위한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을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정읍·고창·부안·순창 등지에서 생산되는 특화농산물의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연시가지 환경개선과 특화거리 조성, 정읍한우와 다문화음식 등을 특화업종으로 개발, 연도형 중심상가인 중앙로 활성화사업, 정읍역 광장을 활용한 어울림장터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직주근접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성동주민센터와 공영 주차장에는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과 청년주거공간(100호),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다. 특히 LH 전북본부의 주거복지센터와 사회적경제플랫폼이 이곳으로 확대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사를 투입해, Re:tm 정읍, 헤시태그(#[驛])를 비전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선다.

조성하는 등 사회적약자의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펼친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으로는 간선도로의 녹색기능 제고사업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시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마을협정 체결과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할 계획이다.

▲세대통합 및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도심지 내 방치된 빈 집, 빈 건물, 폐공장부지 등을 활용하여 작은 역사공원, 아트 팩토리 플라자, 소셜믹스 문화센터, 정읍역 스테이션 및 컨퍼런스 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도심의 역사·문화 보존과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전시 공간 제공, 세대별·계층별 통합 문화복지공간, 스마트 통합 관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지역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예방사업 및 다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정읍형 도시재생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사업은 도농 청년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도농 청년들이 교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을 모색하고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준공식

### 주민 커뮤니티·창업지원 공간 갖춰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운영위원장 김영수, 이하 공감플러스센터) 준공식이 지난 1일 내장상동 현지에서 열렸다.

준공식에는 유진섭 시장,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과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정읍지역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플러스센터 건립은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련해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2018년 시범사업으로 도시지역까지 확대한 동(洞) 소재지 정비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9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확보

공감플러스센터는 특히 외부 환경 배치가 돋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유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상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내장상동의 접근성이 유리한 여건들을 고려해 외부 광장을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준공식 당일에는 프리플러스마켓도 운영됐다. 프리플러스마켓은 농산물 및 먹거리를 판매하는 맛+Zone과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상품이나 각종 향차품을 판매하는 맛+Zone, 각종 체험과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의 흥+Zone, 봉사공동체 및 물품기부 등이 이루어진 알+Zone으로 운영됐다.

공감플러스센터 운영위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프리플러스마켓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농산물 소개와 판매, 초형물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주민간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지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기념사에서 "공감플러스센터는 사업 계획에서부터 준공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해 일궈낸 성과로, 민간 협치의 표본이다"며 "공감플러스센터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 화합,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촉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제294회 부안군의회 정례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제8회 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2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특히 상임 위원회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안군 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13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 집행 결과와 집행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 "공약은 군민과 가장 첫 약속"

### 권익현 부안군수,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권익현 부안군수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8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민선 7기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공약 집과 선거공약서, 선거 공보에 대해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 2018년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선거공약서 및 선거 공보의 매니페스토 우수선행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지난 6.13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공약 집, 선거공약

서, 선거 공보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선거공약서에서 새로운 부안의 핵심이 신뢰와 성장이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과 행정,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함께 쌓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권군수는 4대 비전 12대 약속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 행정의 바탕 위에 안정된 경제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부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좋은 평가가 받았다.

권익현 군수는 "공약은 군민들과 가장 첫 약속"이라며 "민선 7기 부안군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군정목표와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행정', '소득을 높이는



부안군수 권익현이 '공약은 군민과 가장 첫 약속'이라는 군정목표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군정목표와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행정', '소득을 높이는

/부안=이옥수 기자

## 고창군-새만금지방환경청-국립공원관리공단 협약 체결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선운산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식물(Ⅱ급인 '석곡'을 증식·복원하기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곡'은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를 통해 선운산에 자생지가 있음이 알려졌다. 나무나 암벽에 붙어서 자라는 생태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약용 및 관상을 목적으로 남획되어 자생지 훼손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새만금지방환경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멸종위기 식물 복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멸종위기식물의 복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증식기술개발, 증식, 증식개체 분양,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을 지원하며, 고창군은 멸종위기식물의 복원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없음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 GIFT SET 1세: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750ml 1ea/12%
- GIFT SET 4세: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375ml 5ea/13%
- GIFT SET 6세: 500ml 할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myeongju.com